

[ 사회 ]



17일 오후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 '2009 소년원 희망프로젝트'에서 모처럼 외출에 나선 광주 고통정보산업학교(옛 소년원) 학생들이 스키 강습을 받고 있다. /전북 무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고통정보교 학생 20명의 '스키장 외출'

“이젠 활기차게 새 출발해야죠”

‘2009 소년원 희망프로젝트’ 참가

“새하얀 설원을 보니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새 출발 해야겠다는 의욕이 절로 듭니다.”

광주 고통정보산업학교(옛 소년원·이하 고통정보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키캠프’가 열린 17일 오후 2시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주리조트 스키장. 뿔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에 몸은 절로 움츠러들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 하지만 고글에 하늘색 스키복을 입은 학생들은 모처럼의 나들이에 추위마저 잊은 듯 했다.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스키캠프(17일~18일)는 용평·무주리조트 등 전국 8개 주요 스키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스키캠프 참가대상은 광주를 포함한 서울·안양·부산·대구 등 8개 소년원이다. 이번 행사는 소년보호기관 선진화 전략인 ‘2009 소년원 희망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습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시선은 스키강사의 몸동작에 고정됐다. 스키

작업법과 경사면 오르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자 학생들은 곧잘 따라했다. 엉덩방아를 찢으며 넘어지고 일어나길 수 차례.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던 학생들의 스키 실력은 금새 향상됐다. 기본교육 2시간 후 초급자 코스 출발선에 섰다. 강풍에 학생들의 낫에 핀 여드름 낫은 더욱 발광해 변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한 명씩 슬로프(slope)에 몸을 맡겼다. 일부 학생은 겁이 난 나머지 가다 서다를 반복했지만, 대다수는 200m 코스를 단숨에 내달렸다.

학생들끼리 부딪히면 서로 일으켜 주는가 하면 교사들을 슬로프에 넘어뜨리는 등 딱딱하고 무겁던 분위기는 차츰 화기애애해졌다. 학생 이상일(가명·17)군은 “8개월 만에 바깥에 나왔다. 난생 처음 스키를 타보는데, ‘행복이 이런걸까’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신 그곳에 들어가지 않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무주=이종현기자 galee@kwangju.co.kr

이날 스키캠프에 참가한 학생 수는 모두 20명. 나이는 17~21세. 참가 학생들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자격증을 2개 이상 따낸 모범 학생들이다. 한때 실수로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소년원 측의 도움을 받아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중 김이중(가명·21)씨와 이만재(가명·17)군은 이미 사회에 나갈 준비를 마쳤다. 퇴원 후 대학생과 학원강사로 첫 발을 내딛게 될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 지게차 운전기능사·자동차 정비기능사·용접기능사 등 자격증만 두 무려 10개. 이를 새 출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게 이들의 각오다.

광주 고통정보교 최환형(여·46) 교사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하다. 앞으로도 국토순례를 비롯한 주말외출, 토크취급 등 다양한 개방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주=이종현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교원 5,431명 인사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초·중등 교원 정기인사를 17일 단행했다.

광주지역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 2천397명, 전남지역은 3천34명 등 모두 5천431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신규 배치됐다.

광주는 초등교원 1천582명이 전보되고 98명이 신규 임용됐으며, 중등은 362명(중 110명, 고 252명)이 전보되고, 119명이 첫 교직 발령을 받았다.

전남은 초등에서 1천12명이 자리를 옮겼고 246명이 신규발령 됐으며,

39명은 타 시·도로 전출됐다. 중등에서는 1천480명이 이동했고, 209명은 신규 임용, 43명은 타 시·도 전출, 5명은 초빙교사로 임용됐다.

교원 인사 명단은 시·도 교육청과 광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장·교감 등 간부급 교원인사는 23일께 단행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위기 학생 도와줍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생활지원단’ 본격 활동

광주지역에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잇따라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17일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청에서 안순일 교육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부학생생활지원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동부학생생활지원단은 오는 20일 동부교육청에 문을 열 계획이다.

지원단은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부적응 학생 선도와 치유,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일반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 상담, 비형 학생 위탁교육기관 연계 업무 등을 하게 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위기학생을 상담하고 가정환경 진단, 대안교육기관 연계 등 진단-상담-치료-학교복귀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한다. 특히 경기침체 여파로 학업중단 위기 등에 처한 신민근층 자녀에 대한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 행정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단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각 센터에는 전문 상담교사와 임상심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4명이 배치돼 세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며 24시간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시 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일선 학교 20곳에 전문 상담교사와 자원 상담사 등을 배치한 ‘친한 친구 교실(Wee Class)’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연간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짝 좀 맞춰주세요”

광주 중학교 남녀 성비 불균형 심각

10여개교 최대 5배 차

올해 신입생을 맞이한 광주지역 상당수 중학교가 심각한 성비(性比)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들 학교는 남녀 합반(合班)이 어렵고 화장실 배정, 학내 지도 등에서 서로 크고 작은 문제가 우려된다.

17일 광주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신입생 배정 결과 10여개 학교는 남녀 학생 수 차이가 최대 5배까지 나는 등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다. 남구 서광중은 남학생 5학년 정원이 200명이지만 여학생은 달랑 1학년 40명에 그쳐 남학생이 여학생의 5배나 됐다.

남구 주월중은 남학생 160명(4학년)에 여학생 40명(1학년), 무진중은 남학생 160명(4학년)에 여학생 80명(2학년)으로 혼합반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산구 진흥중도 남학생 240명에 여학생 80명으로 남녀 비율이 3대1이다.

반면 서구 화정중은 남학생은

80명(2학년)이지만 여학생은 무려 3.5배 많은 7학급에 280명에 달했다.

광산구 비아중은 남학생 240명(6학년)에 여학생 120명이지만 인접한 월계중은 반대로 여학생 204명에 남학생 120명으로 여학생이 80여명 많다. 두 학교는 직선거리로 300m 남짓 떨어져 있어 걸어가도 10분이 채 안 걸린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성비 차이가 큰 학교가 나타나는 것은 학군(學群)내에 남중, 여중 등 사립 학교가 있어 이를 채우다 보면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산지역 일부 학교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많이 몰린 것은 학생 편의를 위해 될 수 있으면 근거리 배정을 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광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2만2천635명 가운데 남학생은 1만1천787명, 여학생은 1만 848명으로 남학생이 900여명 많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6분 해질 18시 17분 달돋이 02시 26분 달질 12시 00분

雨水

대체로 맑겠으나 가끔 구름이 많이 낀 지역도 있겠다.

Table with 2 columns: Location and Temperature. Locations include Gwangju, Mokpo, Yeosu, etc. Temperatures range from -6.7C to 1.4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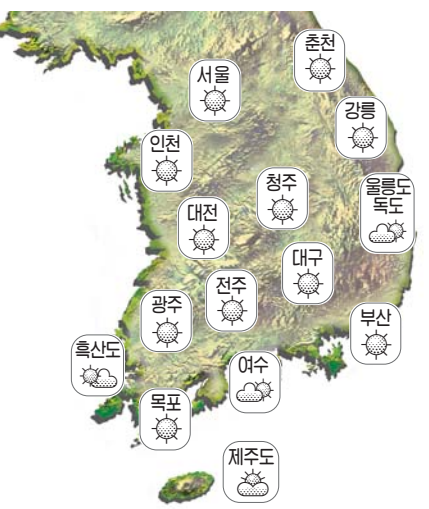


Table with 5 columns: Sea, Direction, Wind, Rain, and Snow. It lists weather details for the East Sea and South Sea.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7 columns: Day, Day of Week, Weather, High/Low, and High/Low. It shows a 7-day weather forecast.

광주시내 간선도로 104km 일제 정비

광주시가 오는 10월 개최되는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20m 이상 간선도로 60개 노선 104km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달 말부터 29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서문로 등 관문 통과도로와 시청로 등 도심 주요 간선도로 20개 노선의 노면 덧씌우기 등 포장도로 정비를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8억원을 들여 차선 색이 바랜 시

가지 40개 노선 85km 구간은 도색을 다시 하고 구형 도로안내 표지판 141곳을 교체한다.

이와 함께 관산대교 등 5개 다리 보수공사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등에도 공사비 23억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상근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공사 중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 부교육감 이재민씨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이재민(57·사진) 한국체육대 사무국장



이 17일 임명됐다. 이 부교육감은 광주출신으로 1970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교과부 교직원채직원 과정, 국제교육진흥원 기획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업무추진력이 뛰어나고 폭넓은 대인관계가 장점이라는 평이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전남여고 3학년 반장으로 백지동맹을 주도해 퇴학당했던 최순덕(98) 여사가 모친이기도 하다. 취임식은 19일 오전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 밖 청소년들

범죄 노출 최고 5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의 학생보다 최고 5배 넘게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부연구위원이 낸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1년간 폭력 범죄를 당한 비재학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은 같은 나이의 학생보다 4.6배 높았다.

이 기간 폭력범죄(금품갈취·폭행·협박)를 당한 청소년은 중학생이 인구 100명 당 8.5명, 고교생 4.7명인 데 비해 비재학생은 21.6명이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Gwangju MBC Cultural Center. It features a woman in a yellow dress performing a traditional dance. Text includes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무안 - 상해(방곡) 직항!!',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wangju MBC Cultural Center.